

# 한국 사찰 산신각(山神閣)의 건축적 특성과 성격 연구

양상현<sup>1\*</sup>, 김예정<sup>2</sup>

<sup>1</sup>순천향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sup>2</sup>순천향대학교 공과대학원

## A Study on Sansinkak of Korean Temple

Sanghyun Yang<sup>1\*</sup> and Yaejoung Kim<sup>2</sup>

<sup>1</sup>Department of Architecture, SoonChunHyang University

<sup>2</sup>Graduate School, SoonChunHyang University

**요 약** 산신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토착 신앙이 불교 내부에 수용된 것으로 사찰 안에 산신각이 건립된 것은 17세기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본다. 불교 고유의 신격이 아닌 까닭에 산신각의 입지는 불전의 배후에 떨어져 산과 가까운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다수의 사찰에서 산신각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그 크기가 작은 까닭은 산신 신앙의 개인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한 이러한 간결한 형태를 통하여 산천 정기가 집약, 응축된 장소임을 강하게 표현하려는 상징적 의도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신각은 산천의 정기가 사찰 안으로 흘러 모여드는 통로이자 불교의 고유한 신앙체계가 무한한 자연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출구이기도 하다.

**Abstract** 'Sansinkak' is the building which contains the picture or statue of mountain god(=Sansin). It is also an expression of respect for the mountain god. This building is usually very small, so a few person can enter inside it. Because people pray to mountain god for personal purpose, sometime this wishes are exclusive and egoistic, so narrow space is more suitable. Sansin is not the original god of Buddhism, it is the god of folk belief of traditional Korea, so every Sansinkak is located in the back slope of the temples, away from Buddha's building, the center area. Sansinkak is not only the pathway of vital force from back mountains to the temple, but also the exit to the infinite nature as an extension of Buddhist belief.

**Key Words** : Sansinkak, Sansin, Korean Temple, Buddhism

### 1. 서론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산악을 풍요와 안전을 보장하는 신성한 대상으로 여겼으며, 산에는 이를 주관하는 신격이 있다고 믿었으니 이것이 곧 산신이다. 사찰 내에 이와 같은 산신을 모신 집을 '산신각(山神閣)'이라 부른다. 산신각과 비슷한 위계를 지닌 건물로 나만존자를 모신 독성각, 수명장수신인 칠성신을 모신 칠성각 등이 있는데, 이 세 신격을 한 건물에 나란히 봉안하여 삼성각이라 부르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산신각, 독성각, 칠성각, 삼성각 등 유사 전각 모두를 대표하여 산신각으로 칭하기도 한다. 본 고에서도 이들을 함께 부르는 경우, 산신각이라 하

였다.

사찰 건축의 전각 구성에 대한 한 연구에 의하면 조사 대상 45개 사찰 중 산신을 모신 전각이 존재하는 경우는 모두 34개소로, 일주문이 21개소, 천왕문이 24개소, 관음전이 11개소에 그치고 있음에 비하여 월등히 큰 빈도를 보이고 있다.<sup>[1]</sup> 이러한 조사는 산신신앙이 불교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상당함을 알려주는 것으로 다른 전각에 비하여 크기는 비록 작지만 산신각이 사찰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한다.

본 연구는 산신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사찰 내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기존 연구를 통해 정리하고, 산신이 모셔져 있는 주요 34곳의 사찰을 대상으로 그 입지 및 건축

이 논문은 2008년도 순천향대학교 교수 연구년제에 의하여 연구하였음.

\*교신저자 : 양상현(sonamu@sch.ac.kr)

접수일 10년 08월 12일

수정일 (1차 10년 09월 28일, 2차 10년 10월 06일)

게재확정일 10년 10월 15일

적 특징을 분석하여 산신각이 한국 사찰에서 갖는 성격과 그 종교적 공간으로서의 의의를 조명하고자 한다.

## 2. 산신과 산신각의 기원

### 2.1 불교에서의 산신

원래의 불교에서 산신은 주된 예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잡신의 하나로 간주되었고 여러 경전에서 부처나 고승들에게 감화되어 불법에 귀의하거나 혹은 소극적으로 협조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 때로는 수도와 성불을 방해하는 대립적 존재로 그려지기까지 한다. 산신이 불경에 등장하는 사례 중 대반열반경에는 ‘여러 산신들이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나 앉았다’고 되어 있으며, 불설해유왕경은 부처가 용궁으로 행차할 적에 산신이 보살, 봉황신, 용, 제석 범천 등 여러 신과 함께 협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2)</sup> 불가의 경전에서 산신이 비교적 단일한 성격으로 나타난 사례로 화엄경 80권본을 보면, 부처를 따르는 39위 신중의 하나로 금강신(金剛神), 주성신(主城神), 주림신(主林神), 주해신(主海神) 등과 함께 주산신(主山神)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불가의 경전에서 언급되고 있는 산신은 여러 자연물에 대응된 신들 중 하나에 그쳐, 특별히 두드러지는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여러 신 중 압도적인 숭앙을 받아온 우리의 전통적인 산신 신앙과 불가의 산신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전에서 언급된 산신의 존재는 불교적 수용의 근거로 제시되어 신앙적 이질감을 해소하는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 2.2 산신각의 기원

산신이 불가에서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중기 이후의 일로 추정되는데, 1573년에 공림사에서 간행된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의 산왕청문(山王請文)을 비롯하여 이후의 여러 기록에서 산신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산신이 우리나라의 불교에 수용되기 시작한 초기의 기록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오른다. 진평왕 때 여승 지혜가 불전을 새로 짓고 벽에 여러 천신과 5악의 신들을 그려 모셨다는 이야기를 삼국유사에서 찾을 수 있다. 통일신라나 고려 시대의 불교와 관련된 자료에는 산신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1827년에 간행된 작법구감(作法龜鑑)에는 ‘산왕경(山王經)’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데, 산신을 불러오기 위한 산신청문이 ‘경’이라는 명칭으로 승격된 것을 보면 산신신

앙이 불가 전반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를 관통한 승유억불정책으로 왕실과 귀족층에서 지원을 얻지 못한 불교는 스스로의 존립을 위해 기층 민중의 신앙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구복적인 산신신앙이 불교 내로 유입된 것이다.<sup>13)</sup>

한편 산신이 불교에 수용된 것은 사찰의 입지 조건과도 무관하지 않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대부분의 주요 사찰이 산중에 위치하게 된 바, 산에 본래부터 주인으로 자리 잡아 온 산신과의 일정한 신앙적 동거가 불가피해진다. 사찰과 그 거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서도 산의 터줏대감 격인 산신의 보호를 담보하고자 하는 요구가 생겨났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 역시 사찰 안에 산신각이 수용되기 시작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남아있는 산신각의 대부분은 조선 후기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어진 것들로<sup>14)</sup>,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오랜 자료는 18세기 후반의 기록인 인악집(仁嶽集)에 수록된 해남 은적암의 산령각기(山靈閣記)이다. 또한 산신각 안에 봉안된 산신행화 역시 대부분 19세기 이후의 것으로, 현재 명문이 남아있는 산신행화 가운데서 가장 앞선 것은 1817년에 그려진 은해사 박물관 소장 산신행화이다.<sup>15)</sup> 이러한 사실로 보아 산신신앙이 불교 내에 널리 확산, 수용되고 이에 따라 사찰 내에 산신각이 독립된 전각으로 지어지는 시기는 17, 18세기의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 산신각 사례 분석

본 장에서는 조선시대의 주요 사찰건축 중 산신각, 산령각, 삼성각 등 산신을 모신 전각이 있는 34곳의 사찰을 선정하여 해당 전각의 사찰 내 입지와 건축적 구성, 규모와 형태 등을 분석하였다. 일부의 사례는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것들도 존재하고 있으나 이들도 전통적 산신각의 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본 조사에 포함시켰다. 지면 관계 상 분석 내용을 아래의 표로 요약, 정리하였다.

【표 1】 산신각 사례 분석

사찰명	건축특징 위치	배치 및 위성사진	사진
1 무량사 (부여) 삼성각	정면3칸 측면1칸 맞배지붕 익공		
	극락전 후면		

2 선암사 (순천) 산신각 및 삼성각	정면1칸 측면1칸 맞배지붕 공포없음 대웅전 후면(북쪽)		
	정면3칸 측면2칸 맞배지붕 익공 대웅전 후면(서쪽)		
3 대흥사 (해남) 산신각	정면5칸 측면3칸 맞배지붕 익공 ★웅진당과함 께 쓰이는건물 대웅보전 측면		
	정면3칸 측면1칸 맞배지붕 공포없음 대웅전 후면		
4 개심사 (서산) 산신각	정면1칸 측면2칸 맞배지붕 익공 대웅보전 측면		
	정면3칸 측면2칸 맞배지붕 익공 대웅보전 후면		
5 선운사 (고창) 산신각	정면1칸 측면2칸 맞배지붕 익공 대웅보전 측면		
	정면3칸 측면2칸 맞배지붕 익공 대웅보전 후면		
6 고운사 (의성) 삼성각 1998년 지음	정면1칸 측면1칸 맞배지붕 익공 보광명전 후면		
	정면3칸 측면2칸 맞배지붕 익공 대웅보전 후면		
7 용문사 (예천) 산신각	정면1칸 측면1칸 맞배지붕 익공 대웅보전 측면		
	정면3칸 측면2칸 팔작지붕 다포 대웅보전 후면		
8 범주사 (보은) 삼성각	정면1칸 측면1칸 맞배지붕 공포없음 대웅전 측면		
	정면1칸 측면1칸 맞배지붕 공포없음 대웅전 후면		
9 봉정사 (안동) 삼성각	정면1칸 측면1칸 맞배지붕 공포없음 대웅전 측면		
	정면3칸 측면2칸 팔작지붕 공포없음 대웅전 후면		
10 화암사 (완주) 산신각	정면1칸 측면1칸 맞배지붕 공포없음 대웅전 측면		
	정면3칸 측면2칸 팔작지붕 공포없음 대웅전 후면		
11 송광사 (완주) 삼성각	정면1칸 측면1칸 맞배지붕 공포없음 대웅전 측면		
	정면3칸 측면2칸 팔작지붕 공포없음 대웅전 후면		

12 송광사 (순천) 삼성각	정면1칸 측면1칸 맞배지붕 익공 대웅전 후면		
	정면1칸 측면1칸 맞배지붕 익공 대웅전 후면		
13 성불사 (천안) 산신각	정면3칸 측면 2칸 맞배지붕 익공 대웅전 후면		
	정면3칸 측면1칸 맞배지붕 공포없음 대웅전 후면		
14 쌍계사 (하동) 삼성각	정면1칸 측면1칸 맞배지붕 익공 대웅전 후면		
	정면3칸 측면1칸 맞배지붕 공포없음 대웅전 후면		
15 전등사 (강화) 삼성각	정면1칸 측면1칸 맞배지붕 익공 대웅전 후면		
	정면1칸 측면1칸 맞배지붕 익공 대웅전 후면		
16 무위사 (강진) 산신각	정면3칸 측면2칸 맞배지붕 익공 대웅보전 측면		
	정면3칸 측면2칸 맞배지붕 익공 대웅보전 후면		
17 금산사 (김제) 삼성각	정면3칸 측면1칸 맞배지붕 익공 대웅전 후면		
	정면3칸 측면1칸 맞배지붕 익공 대웅전 후면		
18 동화사 (대구) 산신각	정면3칸 측면2칸 팔작지붕 익공 대웅보전 측면		
	정면3칸 측면2칸 팔작지붕 익공 대웅보전 후면		
19 부석사 (영주) 삼성각	정면1칸 측면1칸 맞배지붕 익공 대웅전 측면		
	정면1칸 측면1칸 맞배지붕 익공 대웅전 후면		
20 보광사 (파주) 산신각	정면3칸 측면1칸 맞배지붕 익공 대웅전 측면		
	정면3칸 측면1칸 맞배지붕 익공 대웅전 후면		
21 장곡사 (청양) 삼성각	정면1칸 측면1칸 맞배지붕 익공 대웅전 측면		
	정면3칸 측면2칸 팔작지붕 익공 대웅전 후면		



22 통도사 (양산) 삼성각 및 산령각	정면3칸 측면2칸 맞배지붕 익공		
	정면1칸 측면1칸 맞배지붕 익공		
	대웅전 후면		
23 천은사 (구례) 삼성각	정면3칸 측면2칸 맞배지붕 익공		
	대웅전 후면		
24 도리사 (구미) 삼성각	정면3칸 측면1칸 맞배지붕 익공		
	극락전 후면		
25 정수사 (강화) 삼성각	정면3칸 측면1칸(벽돌) 맞배지붕 공포없음		
	대웅보전 후면		
26 위봉사 (완주) 삼성각	정면3칸 측면1칸 맞배지붕 공포없음		
	극락전 후면		
27 관룡사 (장녕) 산령각	정면2칸 측면1칸 맞배지붕 공포없음		
	대웅전 후면		
28 범어사 (부산) 산령각	정면3칸 측면1칸 맞배지붕 주심포		
	대웅전 후면		
29 청룡사 (안성) 산신각	정면1칸 측면1칸 맞배지붕 익공		
	대웅전 측면		
30 내소사 (부안) 삼성각	정면3칸 측면1칸 맞배지붕 공포없음		
	대웅보전 후면		

31 미황사 (해남) 삼성각	정면3칸 측면2칸 맞배지붕 익공		
	대웅전 후면		
32 은혜사 (영천) 산령각	정면1칸 측면1칸 맞배지붕 공포없음		
	대웅전 후면		
33 개암사 (부안) 산신각	정면3칸 측면1칸 맞배지붕 익공		
	대웅보전 측면		
34 도갑사 (영양) 산신각	정면3칸 측면2칸 맞배지붕 공포없음		
	대웅보전 후면		

○ : 산신각 □ : 불 전

## 4. 산신각의 건축 특성

### 4.1 산신각의 입지

대부분의 경우 산신각의 입지는 사찰 영역의 맨 배후에, 후면의 산림과 만나는 접경 지역에 위치한다. 서산 개심사와 같이 본 절 영역에서 떨어져 아예 단 속으로 올라가 위치하기도 한다. 앞 장에서 살핀 36개의 사례를 보면 불전의 뒤편, 배후의 산림 가까이 존재하는 경우가 모두 29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불전의 측면에 산신각이 위치한 사례들은 대흥사, 화암사, 부석사, 통도사, 봉정사, 청룡사, 개암사 등 7곳인데 이들 모두 사찰의 진입 과정에서 보면 산신각이 불전보다 나중에 나타나게 되므로 참례자의 입장에서는 산신각은 불전 배후의 산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된다.

산신각의 입지가 이러한 까닭은 산신 신앙이 본래의 불교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부처를 모신 본전과 거리를 두어 배치함으로써 신앙적 위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명부전이나 관음전, 응진전 등의 보살전에 해당하는 전각들보다도 불전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입지하는 것은 2.1장에서 살핀 대로 불교 본연의 신앙체계와 산신 신앙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전통적 지리인식과 관련하여 사찰 경내와 산림이 만나는 접경 부위 즉, 사찰 배후 주산의 맥이 흘러들어오는 곳에 산신각을 두어 산천정기가 사찰

의 내부로 순치되어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의미 부여라고 해석된다.<sup>16)</sup>

### 4.2 산신각의 형태와 의장특성

표 2에서 보이듯 산신만을 봉안하는 산신각은 단칸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칠성, 독성, 산신을 모신 삼성각인 경우는 그 규모가 정면 3칸, 측면 2칸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정면의 크기가 3칸에 이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간 사이가 다른 건물에 비하여 좁고, 건물의 높이 또한 낮아서 내부 공간의 크기는 부처, 보살 및 여러 신중을 모시는 사찰의 여러 의례용 전각 중에서 가장 협소한 규모인 경우가 많다.

공포의 형식에 있어서도 비교적 규모가 큰 보은 법주사 삼성각은 예외적으로 다포를 취하고 있었으나 이를 제외한 35개 산신각은 대부분 소박한 익공 혹은 주심포 양식을 취하거나 따로 공포를 두지 않는 경우도 13개소에 이르렀다. 지붕 형태에 있어서도 33개소가 맞배를 택하고 있어 매우 소박한 인상을 취한다. 전체적으로 산신각의 형태는 소박하고 아담하여 주변의 자연과 이질감이 없다. 산신각이 사찰 중심 영역에서 떨어져 존재하는 점이나 산에 동화되어 조화를 이루게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산신각의 형태와 의장

	분 류	산신각수	삼성각수	합 계(백분율%)	총계
규 모	3×2	1	10	11(31)	36
	3×1	4	7	11(31)	
	*2×3	1	0	1(3)	
	2×1	1	0	1(3)	
	1×2	1	0	1(3)	
공 포	1×1	9	2	11(31)	36
	다포	0	1	1(3)	
	주심포	1	0	1(3)	
	익공	8	12	20(56)	
지붕형태	공포없음	8	6	14(39)	36
	맞배지붕	17	16	33(92)	
	팔작지붕	0	3	3(8)	
합 계		17	19	-	36

\*2×3칸의 규모로 조사된 것은 대흥사 산신각으로 건물의 전면은 모두 5칸이나, 좌측 3칸이 응진당으로 쓰이고 있어 산신각에 해당 하는 부분만 산입하였다.

### 4.3 산신각의 내부 구성

산신각의 내부에는 대부분 탕화 형태의 산신도가 봉안

된다. 이 산신행화는 중심인물이 남자인 경우와 여자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sup>17)</sup> 표 3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남자 산신은 흰수염, 긴 눈썹, 백발노인으로 표현되며, 호랑이는 산신의 지시에 따르는 영물로서 산신 옆에 그려진다.<sup>18)</sup>

반면, 지리산, 계룡산, 속리산 등 여성이 산의 주신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 그 인근 사찰의 산신각에는 할머니의 모습을 한 여산신을 모시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를 속리산 천황사, 지리산 실상사 약수암, 계룡산 동학사, 하동 쌍계사 삼성각, 쌍계사 국사암 산신각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탕화 속에서 여산신은 트레머리에 땀기를 두르고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으며, 호랑이에 걸터앉거나 기대어 손에는 대게 불로초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표 3】 산신행화

산신(男)	여산신
	
양산 동도사 산령각	안성 청룡사 산신각
	하동 쌍계사 국사암 산신각

내부 공간의 크기로 보아 대부분의 산신각은 작고 아담하여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거나 마주앉아 강설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림 1의 경북 군위 인각사 산령각과 같이 감실형태의 작은 건물 안에 산신행화만을 모셔 두어 아예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림 1】 경북 군위 인각사 산령각

이와 같은 산신각의 구조는 산신신앙의 개인적 측면과 관련된다. 산신 신앙의 특성 상 산신각에서는 자식과 재물, 개인의 복락을 기원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성격의 산신 기도가 행해지게 된다. 산신에게 올려진 불가의 한 제문에는, ‘중생이 복을 구하면 복을 주고 재물을 구하면 재물을, 아들을 구하면 아들을 준다’는 기원이 보이고 있다.<sup>19)</sup> 경우에 따라 이러한 기도는 배타적, 이기적인 면을

지니게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현실 기복적이며 지극히 개인적인 소원이 희구되어지는 장소로는 타인의 이목에 대한 부담 없이 혼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작고 폐쇄적인 공간이 적합하다. 대웅전 등의 불전에서 이루어지는 의례가 보다 공개적이며 사회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과 대비되어 이해할 수 있다.



영주 부석사

대구 동화사

[그림 2] 산신각 내부 단청

산신각 내외부의 단청에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 초화나 십장생 문양이 많이 나타나는데, 산신각의 성격을 반영하여 산에서 볼 수 있는 자연물을 그려 넣은 것으로 보인다.

## 5. 결론

산신각은 우리의 고유한 산신 신앙에서 비롯한 산천에 대한 예경의 불교적 표현이다. 이 장소는 산천의 정기가 사찰 안으로 흘러 모여드는 통로이자 불교의 고유한 신앙체계가 무한한 자연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출구이기도 하다.

대다수의 사찰에서 산신각을 빠짐없이 두고 있으리만 치 산신각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크기가 작은 까닭은 산신 신앙의 개인성에서 비롯한 것이며 그 형태에 있어 소박하고 아담하여 주변의 자연과 이질감이 없는 외형을 통하여 산천 정기가 집약, 응축된 장소임을 강하게 표현하려는 상징적 의도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칸의 일주문에서 시작된 사찰의 배치 구조는 산문과 불전, 보살전 등을 지나 맨 뒤에 놓인 한 칸의 산신각에 이르러 배후의 산, 자연을 향해 열려진 끝으로 맺어진다.

## 참고문헌

- [1] 양상현, “조선시대 사찰배치의 서사구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153, 1999.  
 [2] 이송희, “17~18세기 사찰 내 산신각 건립배경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16, 2007.

- [3] 윤열수, “산신도”, 대원사, p.35, 1998.  
 [4] 윤열수, “조선후기 산신행화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38, 1998.  
 [5] 손진, “한국불교의 산신신앙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41-42, 2008.  
 [6] 신영훈, “절로 가는 마음”, 책만드는집, p.64, 1995.  
 [7] 광춘섭, “사찰 산신각의 의미와 배치형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39, 2001.  
 [8] 장양경, “19세기 불교 산신도 연구”, 경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19, 2007.  
 [9] 이송희, 앞 논문, pp.23-24.

### 양 상 현(Sanghyun Yang)

[정회원]



- 1993년 8월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축학과 (공학석사)
- 1999년 8월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축학과 (공학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순천향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관심분야>

한국건축사, 건축계획 및 설계

### 김 예 정(Yaejoung Kim)

[정회원]



- 2006년 2월 : 순천향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공학사)
- 2009년 2월 : 순천향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축학과 (공학석사)

<관심분야>

건축계획 및 설계